

청교도 사회의 집단적 폭력성과 헤스터의 사회적 역할 연구

이 경 화
(단국대학교)

Lee, Kyeong-Hwa. "A Study of the Collective Violence of the Puritan Society and Hester's Social Role."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4.1 (2018): 87-105. This essay aims to study the collective violence of the Puritan society and the social role of Hester, heroine of *The Scarlet Letter*. The scientific revolution began in the 17th Century Europe, which brought about the development of rationality. Since then, the subject of individual who acts independently based on his/her rational decision had become important in European society of modern times. In the novel Hester is charged with felony adultery. Her punishment on the scaffold and the following isolation are understood as a type of René Girard's collective violence. It seems that Puritans overcome the crisis of their society by using Hester as the scapegoat through which they relieve their negative feelings. Meanwhile, Hester imbibes the progressive ideas of Europe while living in solitude, which changes her to an individual with the thinking ability. The novel suggests that Hester's self-development eventually contributes to social progress in the way in which she gains people's trust and shares her idea with them. (Dankook University)

Key Words: Nathaniel Hawthorne, individual, social role, collective violence, scapegoat

I. 자연스럽지만 자연스럽지 않은 행동

오늘날 집단 따돌림은 현대사회의 집단 문화를 규정하는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흔히 왕따라고 일컬어지는 집단 따돌림은 학교, 직장, 그리고 친교모임에 이르기까지 사회 곳곳에서 행해진다. 집단 내에서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일에 구

성원들 대부분이 동참 또는 방관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 집단 따돌림은 힘의 논리의 산물이다.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것은 야비한 행동이다. 더군다나 그것이 한 사람에게 집단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은 잔인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려 하지 않는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것을 강자의 마땅한 권리로 여기기까지 한다. 인간에게는 선의에 대해 기뻐하고, 악의를 보면 분노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 아파하는 타고난 감정이 있다. 루소(Jean-Jacques Rousseau)에 따르면, 특히 연민은 어떤 감정에도 선행하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으로서, 연민은 개체의 자기애를 완화하면서 종(種)의 보존에도 기여해왔다(50-54). 그러므로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괴롭히는 야비한 행동에 동참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사실 자연스럽지 않은 행동이다. 『소외의 사회학』에서 이홍균도 현대사회에서는 비정상적인 행동들이 정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대사회는 너무나 정상적인 비정상의 상태이다. 정상분포곡선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어서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정상적이다. 그 행동 자체도 비정상적이고 그 행동의 결과도 비정상적이다. 문제는 그 비정상이 현대사회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행동들이 사실은 비정상적이라는 것은 현대사회의 위기에 의해 증명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는 비정상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다.

너무나 정상적인 비정상적인 현대사회의 흐름은 기든스가 비유하고 있는 자간나트의 마차와도 같다. 인도 신화에 나오는 이 마차는 엄청난 추진력을 가지고 있으며, 달릴 때 길 위에 부딪치는 모든 것을 파괴한다고 한다. 현대인들은 마차에 치이지 않기 위해서 마차에 올라타지 않을 수 없고 이 마차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알지 못한 채, 함께 달려가고 있다. (5-6)

루소의 주장대로 연민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약자를 괴롭히는 행동에 사람들이 별 죄책감 없이 동참하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사회에 집단 따돌림이 만연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테일러(Charles Taylor)는 현대인들에게 불안감이 내재한다고 진단하고 사회

학적 차원에서 그 원인을 세 가지로 고찰한다. 첫 번째는 전근대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던 도덕적 가치들을 현대인들이 상실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도구적 이성이 현대사회의 모든 영역을 지배함에 따라 인간관계마저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는 무미건조한 삶의 방식 때문이다. 세 번째는 삶의 지평이 개인생활로 좁아짐으로써 현대인들이 공공영역에서 스스로를 소외시켜 버리기 때문이다(5-20). 현대인들은 스스로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라고 느끼지만, 이 느낌은 도덕적 이상이나 신념과 같은 내재적 가치에 뿌리박고 있지 않다. 내재적 가치가 아닌 외적인 상태에 의존하는 만큼 이들은 불안감을 느낀다. 따라서 현대인들의 내면에 잠재해있는 불안감은 이들로 하여금 주체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외부의 힘 있는 존재에게 자신을 종속시키게 만든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집단 따돌림은 힘의 논리와 현대인의 불안감이 결합되어 생겨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주홍글자』(*The Scarlet Letter*, 1850)는 영문학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잔인한 집단 따돌림을 보여준다. 주인공 헤스터(Hester)는 간음을 범한 죄로 사회에서 소외를 당한다. 간음을 범한 죄의 대가로는 지나치다고 할 만큼, 보스턴(Boston)의 청교도들은 헤스터를 피하고 그녀와 말을 섞지 않는다. 어쩌다 말을 건넌 때도 그들의 말투에는 그녀를 경멸하는 마음이 묻어있다. 호손(Nathaniel Hawthorne)은 이럴 때마다 헤스터가 느끼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그녀의 마음이 깊은 상처를 마늘로 헤집어놓는 것만큼 아프다고 표현한다.

호손은 『주홍글자』에 나타난 집단 따돌림 혹은 소외의 문제를 개인과 사회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작품의 배경이 되고 있는 청교도 사회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입각하여 정치체제가 수립되었다. 더 나아가 청교도 사회는 “종교적 믿음이 모든 걸 지배하는 정교일치의 사회”(홍익회 37)였다. 모든 것이 종교적 믿음의 지배를 받는 정교일치 사회에서는 개인의 행동 역시 합리적 기준에 의한 판단보다 종교적 해석이나 사회 통념에 비추어 판단을 받았다. 따라서 청교도 사회에서 간음은 『성경』의 십계명을 어긴 것으로 간주되어 사형에 처해졌다. 호손은 간음한 헤스터를 대하는 청교도들의 비합리적인 태도를 문제 삼아 청교도 사회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한다.

헤스터는 이성의 지배를 받는 근대적 개인이라고 할 수 있다. 청교도 사회에

서 지도층은 신적인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였다. 작품에서 헤스터의 공개 처벌이 있는 날 처형대가 내려다보이는 교회의 발코니에 벨링햄 총독(Governor Bellingham)이 근엄한 모습으로 앉았고 창을 든 친위병들이 그를 지키고 있다. 그리고 총독을 둘러싸고 청교도 사회를 이끄는 목사들이 “다양한 권력 형태에 하나님이 세운 제도의 신성함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되던 시대에 어울리는 위엄 있는 태도”(59-60)¹로 서 있다. 무장한 병사들에 의해 호위를 받는 총독과 소수의 종교 지도자들이 높은 곳에서 죄인을 내려다보는 장면은 신앙 공동체보다는 절대왕정 체제를 떠올리게 한다. 또한 지도층에 대한 묘사는 청교도 사회에서 이들이 누리는 지위와 권력을 짐작하게 해준다.

이와 같이 청교도 사회에서는 모든 권력이 총독과 소수의 지도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권력이 신성시된다. 이렇게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린 곳에서는 구성원들이 오롯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란 어려운 법이다. 호손은 지도층의 강한 영향력 아래에서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강했던 17세기 청교도 사회를 작품의 배경으로 선택함으로써 사회의 집단적 행동이 개인에게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강한 어조로 호소한다. 그리고 헤스터를 모진 아픔을 겪으면서 오히려 이를 계기로 삼아 이성적 사유 능력을 기르고 독립적인 개인으로 거듭나는 인물로 그려낸다. 이 점에 있어서 『주홍글자』는 개인과 사회에 대한 근대적 사유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본 논문은 서구사회에서 ‘개인’이 발전하게 된 역사를 살펴보고 이를 발판으로 『주홍글자』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그동안 개인과 사회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호손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미국의 아담』(*The American Adam*)에서 루이스(R. W. B. Lewis)는 개인이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지속할 때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호손의 견해로 보고 이를 연구한다(113). 왜거너(Hyatt H. Waggoner)는 “호손은 누구보다 의사소통과 공동체에 중요한 가치를 두었다”(1979, 13)고 주장한다. 또한 채이스(Richard Chase)는 “보다 정확하게 말해서, 이 책의 주제는 죄의 도덕적 그리고 심리적 결과물인 고립과 병적인 상태 그리고 정서적 삶의 왜곡과 좌절이다. 다른 관점에서 볼 때 방금 언급한 것들은 인간이 죄에 거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

¹ *The Scarlet Letter*의 본문 인용은 페이지 숫자만을 기록함.

물들이 아니라, 그가 청교도 사회에 살기 때문에 생긴 결과물들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는 인간이 어느 사회에 살든지 이런 결과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72-73)라고 말함으로써 『주홍글자』에서 고립과 이로 인한 고통이 사회 속의 존재로서 개인이 경험하는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실히 밝힌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최근의 논문들은 청교도 사회의 정치 담론에 주목하거나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헤스터를 분석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주홍글자』의 현대성」에서 김옥동은 “호손이 이 작품을 출간할 무렵만 하여도 청교도 사회의 준엄한 법률에 과감하게 맞서는 젊은 여성을 다룬 소설이 적지 않아서 19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그 자체로 소설의 하부 장르를 이루고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호손은 . . . 간음이나 불륜의 사랑보다는 오히려 언어와 정치, 담론과 권력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였던 것이다”(99)라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주홍글자』의 ‘언어와 정치, 담론과 권력’을 연구하되 그 초점을 헤스터에 대한 청교도 사회의 태도가 집단 폭력의 성격을 띠는 점과 각성한 개인으로서 헤스터가 어떤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둬으로써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를 꾀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 따돌림의 해결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II. 개인과 사회

서구사회에서 개인에 대한 의식이 싹트게 된 것은 이성의 발달과 관련이 깊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17세기 유럽은 특별하다. 유럽은 프랑스혁명을 거치면서 근대 시민사회가 뿌리내리기까지 절대왕정 체제의 지배를 받았다. 절대왕정의 이론적 근거로서 사용된 왕권신수설은 왕의 권력을 신성화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왕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따르게 만들었다. 절대왕정 체제는 이와 같은 절대적 왕권을 중심으로 관료조직과 군사조직이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절대왕정 체제는 매우 집단적이며, 이런 사회에서 왕과 다른 주장을 하고 왕에게 반기를 드는 개인이란 있을 수 없다.

혁명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놀라운 성과를 일궈낸 17세기 과학의 발전은 기존

질서에 변화를 몰고 온다. 갈릴레이와 뉴턴으로 대표되는 이 시기의 과학은 어떤 가설이 진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권위에 기대야 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주체가 되어 관찰과 실험을 통해 그 정당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 준다. 따라서 17세기의 과학 혁명과 이로 인한 합리주의 정신의 발달은 종교적 세계관과 이를 토대로 한 절대적 왕권에 균열을 일으키고 인간과 이성에 대한 신뢰를 키운다. 『주홍글자』에서 헤스터는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17세기 유럽을 휩쓴 사상서들을 읽는다. 호손이 그의 시대보다 200년이나 앞선 17세기를 작품의 배경으로 선택한 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², 변혁이라는 당시 유럽의 시대정신이 그가 추구하는 주제에 잘 부합한 까닭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성의 발달은 사람의 중심을 사회 또는 집단 내에서의 관계로부터 내면으로 이동시킨다. 17세기 철학자 데카르트의 명언,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외부 세계로부터 구분되는 ‘생각하는 나’가 자신의 존재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간략하고도 명확하게 보여준다. 생각하는 능력이 내면의 지지대 역할을 할 때 사람은 외부의 힘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본질적 정의는 한 개인을 독립을 추구하는 자율적 존재로 만드는 내면적 특성 속에 들어있다. 이런 자율성은 스스로 살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 개인의 본질이란 사실 자신의 비판적 성찰에서 비롯된 규범과 표상에 의거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자신을 다스리는 힘)이다”(Laurent 11)라고 할 수 있다. 이성이 강한 사람은 비판적 성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개인을 규정하는 것은 바로 이 자율성이다.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혁명은 인권선언문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선포한다. 이때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인간이 개별적 특수성을 넘어서는 보편적 인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보편적 인간성이란 선을 깨닫고 선을 추구하며 선을

² 『주홍글자』의 서문인 세관(The Custom-House)에서 호손은 화자를 통해 청교도 사회의 지도자였던 자신의 선조들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인다. “나는 이러한 내 조상들이 회개를 하고 그들의 잔혹함에 대해 하늘에 용서를 구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들이 죽어서 그들이 행한 죄의 결과에 짓눌려 지금 신음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어쨌든 현재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그들을 대표하여 여기에서 그들 대신 수치를 당하고 그들에 의해 초래된 어떤 저주도... 지금부터 사라지기를 기도한다”(12-13). 이를 근거로 볼 때 호손은 선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청교도 사회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다.

실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모든 사람에게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 개인은 출신 성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보편적 인간성의 담지자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프랑수혁명으로 유럽에서 그때까지 유지되어온 절대왕정 체제의 판이 크게 흔들린다. 그리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에 대한 개인의 예속이라는 기존 관념을 깨뜨리는 작품들이 출현한다. 위고(Victor-Marie Hugo)의 소설 『레 미제라블』(*Les Misérables*)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사회가 법과 규범에 의한 강제력으로 개인을 처벌하려고 할 때 한 성직자의 자기희생적인 사랑이 그 개인의 삶을 바꾸고, 그 개인의 변화된 삶이 역사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사회를 개혁하는 힘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III. 처벌 혹은 집단 폭력

『희생양』(*The Scapegoat*)에서 지라르(René Girard)는 다양한 텍스트를 해독함으로써 집단의 폭력적 성향이 한 개인에게 표출되는 일이 인류의 역사에서 반복되어 왔음을 밝혀낸다. 사회나 집단에 위기 상황이 발생해서 불안감이 조성되면 구성원들은 박해의 대상을 찾아서 그에게 위기의 원인을 돌리는 경향이 있다. 희생양으로 선택되는 대상은 보복의 가능성이 없는 그 집단의 약자가 된다. 희생양에게 박해를 가함으로써 사람들은 그들의 “폭력 욕망”(Girard 32)을 만족시킬 수 있다. 희생양에 대한 집단 폭력은 희생 제의의 성격을 띠므로 희생양을 처벌한 후에 그를 추방하고 나면 집단은 평화를 되찾는다. 『성경』을 제외하고 박해자의 시선에서 기록된 대부분의 텍스트들은 이와 같은 집단 폭력의 실체를 은폐하고 있다.

『주홍글자』에서 청교도 사회가 헤스터에게 가하는 처벌은 지라르가 의미하는 집단 폭력으로 이해된다. 보스턴의 많은 주민들이 감옥 문 앞에 모여 있다. 이윽고 문이 열리고 헤스터가 모습을 드러내자 사람들의 분노가 끓어오르면서 입에서 거친 욕설이 흘러나온다. “저년 바느질 솜씨만은 좋아, 그건 사실이야, 여자 구경꾼들 중의 한 명이 말했다. ‘하지만 저 뻔뻔한 계집 이전에 이런 식으로 솜씨 자랑을 하려고 머리를 굴린 여자가 있었어요? 글썄, 우리의 믿음 좋은 치안판사

님들을 면전에서 비웃고, 훌륭한 분들이 처벌의 뜻으로 내린 것을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하는 게 아니면 뭐겠어요?”(51).

헤스터는 영국에서 나이 많은 학자와 결혼하였다. 프린 씨(Mr. Prynne)는 헤스터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데다 선천적으로 한쪽 어깨가 많이 처져서 얼핏 보면 꼽추 같았다. 헤스터는 늙고 기형인 프린 씨에게 매력을 느끼기는커녕 두려운 마음마저 들었다. 하지만 어려운 처지에 놓인 그녀의 집안을 도와준 대가로 칭찬하는 그를 거절할 수 없어서 그녀는 결혼을 결심하였다. 그러나 이후에 로저 칠링워스(Roger Chillingworth)로 이름을 바꾼 그가 인정하듯 이들의 결혼은 다 타버린 재 위에 장작을 쌓는 것과 같이 불행한 결합이었다. 감옥에 있는 헤스터를 찾아간 칠링워스는 “인생의 좋은 날들을 굶주린 지식욕을 채우는 데 써버리고 이미 쇠약해진 남자가 된 내가 당신처럼 젊고 아름다운 여자에게 무엇을 할 수 있었겠소! . . . 내 마음은 많은 손님이 목을 수 있을 정도로 넓지만 벽난로도 없이 외롭고 냉랭한 집과 같았소”(68)라고 고백한다. 그러나 자신의 욕심 때문에 파국이 예정된 결혼을 강행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칠링워스는 아내의 간음을 용서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아내와 그녀의 연인인 딘즈데일 목사(Reverend Dimmesdale)에게 무섭게 복수한다.

결혼을 한 후 헤스터는 신대륙으로 건너왔다. 하지만 곧 뒤따라오겠다고던 남편으로부터 소식이 없었다. 그동안 그녀는 딘즈데일 목사와 사랑에 빠져 아이를 갖게 되었다. 남편으로부터 소식이 끊긴지 2년이 되었고, 그런 와중에 남편이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소문마저 돌았다는 정황이 참작되어 그녀는 사형을 면하게 되었다. 청교도의 법정은 간음을 한 헤스터를 감옥에 보내는 것 외에도, 그녀를 처형대 위에 3시간 동안 세우고 그녀에게 간음녀(adulteress)를 상징하는 주홍글자 A를 평생 동안 가슴에 달게 하는 것을 판결하였다. 이날은 헤스터의 공개 처벌이 집행되는 날이다. 군중에 둘러싸인 채 헤스터는 고통스럽게 공개 처벌의 장소인 처형대가 있는 곳까지 걸어간다. 그녀는 흥분한 군중이 내뱉는 말과 그들이 내딛는 발걸음에 의해 “마치 자신의 심장이 길거리에 내동댕이쳐져서 짓밟히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52).

화자는 처형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실, 이 처형대는 형벌 기구의 일부였는데, 두 세대가 지난 오늘날 우리 사이에서는 한낱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것이 되어버렸지만, 옛날에는 선량한 시민정신을 기르는 데에 프랑스 테러 정치인들의 단두대만큼이나 효과적인 도구로 간주되었다. . . . 그 개인의 잘못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가 수치심에 얼굴을 가리려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보다 더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폭력은 없으며, 그것보다 더 극악무도한 폭력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처벌의 핵심이다.

In fact, this scaffold constituted a portion of a penal machine, which now, for two or three generations past, has been merely historical and traditionary among us, but was held, in the old time, to be as effectual an agent in the promotion of good citizenship, as ever was the guillotine among the terrorists of France. . . . There can be no outrage, methinks, against our common nature,—whatever be the delinquencies of the individual,—no outrage more flagrant than to forbid the culprit to hide his face for shame; as it was the essence of this punishment to do. (52)

레이놀즈(Larry J. Reynolds)는 “호손이 원천으로 사용한 뉴잉글랜드 역사서 어디에도 처형대라고 불리는 구조물은 없다”(51)고 지적한다. 실제로 청교도 시대에 처형대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역사적 실재가 아닌데도 호손이 굳이 처형대를 고안해 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처형대가 비교되고 있는 프랑스혁명의 단두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프랑스혁명은 시간이 지나면서 폭력적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로베스피에르(Maximilien François Marie Isidore de Robespierre)를 수장으로 하는 자코뱅파는 혁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단두대에서 공개 처형하였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는 단두대는 공포정치의 주요 무대가 되었을 뿐 아니라 민중에게 볼거리를 선사하였다. 자코뱅파는 사람들의 호기심과 억눌린 울분에 부응하기 위하여 단두대의 처형을 국가적 차원의 연극적인 행사로 치렀다. 따라서 단두대는 “거대한 연극적 의식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여러 해 동안 그것은 볼거리를 제공하였다”(Foucault 15).

단두대와 마찬가지로 처형대의 공개 처벌은 일종의 연극적 의식으로 치러진다. 처형대는 연극 무대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처형대의 단상은 사방이 트여 있

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에워쌀 수 있고, 단상은 어른의 어깨 높이 정도”(52)여서 구경꾼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죄인을 쉽게 바라볼 수 있다. 공개 처벌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축제에라도 나온 듯 몰려나온 군중”(59)으로 묘사된다. 이들에게 공개 처벌은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볼거리가 된다.

프랑스혁명 기간 동안 단두대는 인간의 폭력 욕망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 사람의 목이 잘려 나가는 끔찍한 현장을 사람들이 연극 관람을 하듯 호기심의 눈으로 지켜보는 단두대는 인간의 폭력 욕망을 날 것 그대로 드러내었다. 이런 의미에서 처형대가 단두대를 연상시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화자가 처형대의 처벌만큼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폭력은 없다고 성토했던 것에서 처형대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호손은 프랑스혁명이 초래한 결과물들이 훌륭하다는 것을 발견한 한편 프랑스혁명의 폭력성에 반대하였다(Reynolds 48). 따라서 그는 단두대를 본뜬 처형대를 고안함으로써 프랑스혁명이 민중 봉기에서 폭력으로 변질된 것을 비판하고, 아울러 처형대의 공개 처벌이 단두대의 처형과 다를 바 없이 폭력적이라고 힐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헤스터의 처벌이 “그 집단의 욕구 불만과 불안을 희생물에게 쏟음으로써 대리 만족”(Girard 73)을 하고 이로써 집단의 위기를 극복하는 희생양과 집단 폭력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청교도 사회가 벗어나고자 하는 위기는 무엇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620년에 종교적 박해를 피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온 청교도들과 달리, 1630년에 매사추세츠(Massachusetts)에 도착한 1,000여 명의 청교도들은 신대륙에 국가 공동체(commonwealth)를 건설한다는 뚜렷한 목표를 지니고 있었다. 윈스롭(John Winthrop)을 위시한 매사추세츠 청교도 사회의 지도자들은 **정교일치**를 발판으로 국가 공동체를 실현해 나갔다.

문제는 이들 청교도들 또한 [최초의] 순례자들처럼 로마나 캔터베리의 권위에 저항하면서 신앙의 개인성을 인정하였지만, 미국에서 나라를 세우면서 지배 엘리트로 변신하기 시작하였다는 데 있었다. 그리고 초기부터 있었던 개인의 경건함에 대한 강조가 새로운 국가 공동체를 만들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충성과 순종에 대한 강조로 변모하게 되었다는 데에도 있었다. (정태식 61)

국가 공동체의 기틀을 마련함에 있어서 청교도 사회의 지도층은 율법적인 행위를 제도화하였다. 그리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여 사회의 모범적인 시민이 될 것을 촉구하였다. 결과적으로 청교도들은 개인적인 신앙에 충실하기보다 구약성경을 토대로 한 율법적인 행위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또한 지도층은 투표권을 교회의 정회원 남성에게만 부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여성과 평신도들은 소외계층으로 밀려났다. 이와 같이 매사추세츠 청교도 사회는 국가 공동체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불안과 갈등의 요소를 키우게 되었다.

정치적으로 국가 공동체의 건설에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다. 대표적인 인물로 허친슨(Anne Hutchinson)을 들 수 있다. 1634년 영국에서 가족과 함께 이주한 허친슨은 2주일에 한 번씩 가정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코튼(John Cotton) 목사의 주일 설교를 설명해 주면서 인기를 끌었다. 그녀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허친슨의 추종자들은 한 분파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녀는 개인과 성령의 교통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며 도덕률의 폐기를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지도층에게 그들의 권력 기반을 뒤흔드는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결국 허친슨은 종교재판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매사추세츠 식민지에서 쫓겨나 1643년에 비참하게 숨을 거두었다.

『주홍글자』는 17세기 중반 매사추세츠 청교도 사회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 호손은 알고 보면 청교도들이 헤스터와 마찬가지로 죄를 지었음을 시사한다. “경건함과 정의의 귀감이 되고 있는 덕망 있는 목사와 치안판사”(78)마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은 모든 구성원에게 죄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국가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도덕적 완벽주의가 요구된 청교도 사회에서 청교도들은 죄의식에서 비롯된 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한 처녀가 헤스터의 가슴에 붙어있는 주홍글자를 몰래 훔쳐보다가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겁을 먹고 황급히 시선을 피해버리는 이야기(79)는 이를 입증한다. 또한 화자는 작품이 시작할 때 허친슨을 성자 같다고 말하면서(46) 그녀를 헤스터와 연계시킨다. 이후에도 그는 헤스터를 허친슨에 빗대어서 언급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호손은 청교도 사회가 거룩한 외양을 지니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불안과 갈등의 요소들이 끓아서 병들어 있음을 제시한다. 헤스터는 사회의 위기 속에서 희생양, 즉 청교도들이 부정적 감정을 배출시키는 분출구가 되고 있다.

지도층은 헤스터를 영원한 희생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녀에게 주홍글자를 달아준다. 헤스터가 형기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온 후 그녀에 대한 집단 폭력은 집단 따돌림의 양상을 띤다. 헤스터가 길을 가다 마주친 목사에게 위로의 말을 들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안고 다가가면, 그는 안부를 묻는 척 하면서 이내 설교를 늘어놓는다. 그러면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이 당황해하는 그녀의 얼굴을 훑쳐보며 키득거리고 웃는다.

많은 시간이 지나도 헤스터의 곁에는 아무도 오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어디에 있어도 늘 외롭다.

헤스터가 서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그랬듯이, 마술의 원 같은 작은 빈 공간이 그녀의 둘레에 형성되었다. 사람들은 그 원으로부터 약간 떨어진 곳에서는 서로 팔꿈치로 밀치기도 했지만, 그 원 안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As was usually the case wherever Hester stood, a small, vacant area—a sort of magic circle—had formed itself about her into which, though the people were elbowing one another at a little distance, none ventured, or felt disposed to intrude. (204)

화자는 헤스터가 당하는 고통을 “청교도의 법정이 내린, 그 효력이 결코 끝나지 않는 [주홍글자의] 선고에 의해 매우 교활하게 만들어진 것”(77)이라고 일갈한다. 이후에도 그는 “그녀에게 내려진 선고가 지닌 교활한 잔인함이 그녀를 영원히 가두어 두려는 것처럼 보이는 그 치욕의 마법 원 안에 헤스터가 서 있는 동안”(214)이라고 말한다. 그럼으로써 그는 헤스터에 대한 집단 따돌림이 지도층에 의해 의도되었음을 암시한다.

청교도 사회는 벨링햄 총독을 정점으로 그의 주위에 명망 있는 목사들과 행정 관리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포진해 있다. 사회의 중요한 일들은 이들의 손에서 결정된다. 이와 같은 중앙집권적 권력체계, 불평등한 사회구조 그리고 죄의식에서 오는 불안감이 청교도들의 불만을 가중시켜 왔다. 주홍글자의 형벌은 지도층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분출구인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분출구를 통해서 불만을 해소하고 이로써 사회가 안정되면, 그들이 지도층의 권위와 역량을 기꺼이 받아들여지게 되기 때문이다.

IV. 개인으로서의 헤스터

호프만(Elizabeth Aycock Hoffman)은 『주홍글자』가 사회에 순응적인 청교도들과 정신력이 강한 자기신뢰적 인간인 헤스터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13)는 점을 강조한다. 청교도들을 순응적으로 길들이는 힘은 외부적 요소이다. 지도층이 주홍글자의 형벌을 통해 사람들의 불만을 권위에 대한 순종으로 바꿔놓는 것이 한 예이다. 반면 헤스터는 내적 사유를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청교도 사회와의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

주홍글자는 헤스터를 사람들로부터 떼어놓아 자기만의 세계로 고립시킨다. 그녀는 딸과 함께 외롭게 지내는 동안 유럽에서 유행하는 사상서들을 읽기 시작한다.

당시는 이제 막 해방된 인간의 지성이 수세기 전보다 훨씬 더 능동적이며 활동 범위도 더 넓었던 시대였다. 무인들은 귀족들과 왕들을 쓰러뜨렸다. 이들보다 더 대담한 사람들은 현실에서는 아니지만 그들의 실제 주거지라고 할 수 있는 이론의 영역 안에서 고대의 많은 원칙이 연결되어 있는 고대의 편견으로 이루어진 모든 체계를 전복시키고 재편성하였다. 헤스터는 이 정신을 받아들였다. 헤스터가 사색의 자유에 몰든 것은 그즈음 대서양 건너 저쪽에서는 혼란 일이었지만, 우리의 조상들이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주홍글자로 낙인찍는 죄보다 더 심각한 죄로 생각했을 것이다.

It was an age in which the human intellect, newly emancipated, had taken a more active and a wider range than for many centuries before. Men of the sword had overthrown nobles and kings. Men bolder than these had overthrown and rearranged—not actually, but within the sphere of theory, which was their most real abode—the whole system of ancient prejudice, wherewith was linked much of ancient principle. Hester Prynne imbibed this

spirit. She assumed a freedom of speculation, then common enough on the other side of the Atlantic, but which our forefathers, had they known of it, would have held to be a deadlier crime than that stigmatized by the scarlet letter. (143)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7세기에 유럽은 과학 혁명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이성적 사고가 진일보할 수 있었다. 헤스터는 당시 유럽의 지적 풍토에 불어 닥친 변화의 세례를 받는다.

헤스터는 원래 정열적이며 낭만적인 사랑에 대한 욕망을 지닌 인물이다. 그러나 7년의 시간은 정념의 여인 헤스터를 사유하는 인간으로 변화시킨다. 이성적 사유 능력을 지닌 인간으로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헤스터의 삶은 상당 부분 열정과 감정으로부터 사색으로 바뀌었다”(143). 그리고 헤스터는 사회에서 추방됨으로써 구성원들을 순응적인 시민으로 길들이기 위해 청교도 사회가 사용하는 “처벌 수단들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획득하는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Hoffman 15). 그녀는 “인간의 제도들과 목사들 또는 입법자들이 설립해 놓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이렇게 소외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으며, 모든 것을 비판하였다”(174). 오랫동안 소외되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탓에 헤스터가 세상을 보는 시선은 다소 왜곡되어 있다. 하지만 사회의 제도가 지닌 모순을 인식하고 이를 비판하는 모습에서 그녀가 지닌 이성적 사유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헤스터는 소외계층을 찾아가서 헌신적으로 봉사한다. 헤스터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거칠게 욕을 하고 물건을 내던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녀는 묵묵히 참아낸다. 그녀의 정성스러운 간호로 다른 곳에서는 치욕의 표시인 주홍글자가 이곳에서는 병든 사람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온기를 전해주는 따뜻한 등불이 된다. 이렇게 7년 동안의 인고의 세월이 흐르자 헤스터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처음엔 그녀를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그녀의 선행을 칭찬하며 주홍글자 A를 원래의 의미로 해석하기를 거부하고 ‘능력 있는’(able)의 의미로 받아들인다(141).

헤스터가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 선행을 베푸는 것은 그녀가 자신의 사랑을 속죄하고 청교도 사회에 복종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 아니다. 헤스터가 자신에 대한 평판이 좋아져서 “이 표시를 떼다면 그것은 치안판사님들이 기뻐하시는

것과 상관없어요”(147)라고 말하는 대목은 그녀의 봉사가 사회의 처벌과 같은 외부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헤스터는 청교도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깨닫고 자율적 결정에 따라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두 번째 섹션에서 논의하였듯이, 개인의 본질적 조건은 이성의 비판적 성찰 능력에서 비롯된 자율성이다. 헤스터는 이런 의미에서 개인으로 묘사되고 있다. 개인으로서 헤스터는 개인주의적 삶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인 영역으로 삶의 범위를 넓혀간다. 헤스터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김은형은 “죄를 숨기고서 고위층 엘리트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사회 통합을 위한 설교를 하는 딤즈데일보다, 오히려 죄를 드러내어 [중산층에서] 하층민 침모로 전락했으면서도 자신의 예술 작업이자 노동인 바느질과 자선 행위로 남을 도우려고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헤스터가 더 훌륭하게 사회 통합적 역할을 수행한다”(64)라고 설명한다. 화자는 헤스터가 사회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녀의 소명”(141)이라고 말한다.

헤스터는 한발 더 나아가 청교도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 “첫 번째 단계로서 사회의 모든 제도가 폐지되고 새롭게 수립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 여성이 정당하고 적절한 지위 같은 것을 얻는 것이 허용될 때까지, 남성의 천성 혹은 너무 오랫동안 세습되어서 천성처럼 되어버린 습관이 철저히 고쳐져야 한다”(144)는 생각까지 품는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을 허물어버리고 무(無)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은 과격한 혁명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버코비치(Sacvan Bercovitch)는 호손이 과격한 혁명이 아닌 온건한 개혁의 방법을 선호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과정’이라고 부른다. “호손에게 있어서 과정이란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 자체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며, 그렇기 때문에 관용, 수용, 다원주의, 묵인, 그리고 활동의 정지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는 부분성의 형태이다”(8). 이런 이유로 기존의 사회 제도와 가치관을 철저히 부정하는 헤스터는 “길잡이도 없이 마음의 어두운 미로 속에서 방황하였다”(145)라고 묘사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사유는 청교도 사회의 불평등한 사회 제도를 타파하고 억눌린 자들을 위한 정의를 실현한다는 개혁적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헤스터의 사회적 역할과 관련하여 왜거너가 그녀를 구약성경에 나오는 에스더(Esther)의 현대적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왜거너에 따르면,

“헤스터’는 ‘에스터’의 현대적 형태이다. 구약성경의 에스터는 아름다움, 힘, 그리고 위엄을 타고났다. 용기 있고 충실한 그녀는 약하고 억압받는 민족을 보호한다”(1955, 145). 페르시아의 왕후인 에스터는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권력자 하만(Haman)의 계락을 알고 그를 제거하여 유대인들을 몰살의 위기에서 구한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녀는 이들의 차별받고 억눌린 삶을 정상인의 삶의 수준으로 회복시킨다. 에스터는 페르시아의 왕후이지만 일신의 안일만을 꾀하지 않고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을 구하고 그들의 억눌린 삶을 바로잡는 해방자의 이미지로 제시된다. 헤스터 역시 청교도 사회가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해방자의 이미지를 구현한다고 할 수 있다.

헤스터는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야 ‘그녀의 소명’을 지속하게 된다. 사랑하는 딘즈데일 목사를 숲에서 만난 헤스터는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그의 모습을 보고 그만 함께 유럽으로 도망가자고 제안한다. 신대륙을 떠날 계획을 세웠던 헤스터는 그러나 딘즈데일이 죽자 망연자실한다. 그녀는 선행과 봉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등불이 되어주었지만, 정작 그녀의 세계를 밝히던 빛은 꺼져버렸다. 빛이 사라진 캄캄한 암흑 같은 세상에 머물고 싶지 않아서 그녀는 필을 데리고 이곳을 떠난다. 그리고 헤스터는 중년 여인이 되어 돌아온다.

젊은 날의 괴로움과 갈등을 여인의 원숙함으로 승화시킨 듯, 헤스터는 예전과 많이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와서 주홍글자를 스스로 가슴에 단다. 그녀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늘이 정한 때가 되어 세상이 충분히 성숙해져서 좀 더 밝은 시대가 오면, 서로의 행복이라는 더욱 확실한 토대 위에 남녀 간의 모든 관계가 세워지기 위하여 새 진리가 계시될 것이라는 자신의 굳센 믿음을 심어주었다”(227). 사회의 변화는 한 사람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는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의 필요성이 확산되어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비로소 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신세계의 새로운 도덕의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Carpenter 299), 헤스터는 다시 돌아와서 사람들과 자신의 비전을 공유한다. 그럼으로써 그녀는 청교도 사회의 미래를 구축하는 과정에 동참하도록 그들을 이끈다.

V. 『주홍글자』와 현대사회의 집단 따돌림

근대 서구사회가 개인을 발견한 것은 중요한 사건이다. 개인은 이성적 판단에 근거한 자율성을 가지고 구시대의 잔재인 전제정치와 권위에 반대하였다. 호손은 당대의 지적인 조류를 받아들여 『주홍글자』에서 청교도 사회의 모순과 불평등에 맞서는 개인으로서 헤스터를 구현한다. “들장미 넝쿨”(46) 같이 강인한 헤스터는 역경과 고난을 자양분으로 삼아 내면의 발전을 이룬다. 그녀는 이성의 눈으로 청교도 사회의 그늘진 이면을 고찰하고 사회를 위한 개혁적 이상을 구상하지만, 아직 현실이 받쳐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이상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 이후에 그녀는 청교도 사회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논문의 서두에서 인용한 자간나트 마차의 비유는 ‘현대사회에서 과연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만든다. 길 위의 모든 것을 파괴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차에 치이지 않기 위해 무조건 올라탄다. 현대사회의 흐름은 이 마차처럼 빠르고 굉장한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혹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 흐름에 몸을 맡긴다. 자신의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꼼꼼이 생각해 보는 사람은 없다. 현대인들의 마음에 내재하는 불안감은 이성적인 사고를 방해한다.

지라르에 따르면,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어떤 계기가 주어졌을 때 결국 집단 폭력으로 발전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집단 따돌림 역시 사람들의 불안감이 집단 폭력의 형태로 특정 개인에게 표출되는 집단 폭력으로 이해된다. 집단 따돌림과 관련해서 『주홍글자』는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극단적 상황에 처한 헤스터가 느끼는 고통을 섬세한 필치로 그려냄으로써 집단 따돌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회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이성의 힘을 가진 개인들이 중요하며 이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할 때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준다. 그럼으로써 이 작품은 시대를 뛰어넘는 혜안을 보여준다.

Works Cited

- Bercovitch, Sacvan. "The Scarlet Letter: A Twice-Told Tale." *Nathaniel Hawthorne Review*. 22.2 (1996): 1-20. Print.
- Foucault, Michel.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Trans. Alan Sheridan. New York: Vintage Books, 1979. Print.
- Girard, René. *The Scapegoat*. Trans. Kim, Jin Sik. Seoul: Mineum, 1998. Print.
[르네 지라르. 『희생양』. 김진식 역. 서울: 민음사, 1998.]
- Hong, Ik Hee. *The Dollar Story*. Seoul: Hansmedia, 2014. Print.
[홍익희. 『달러이야기: 달러의 탄생과 세계지배의 역사』. 서울: 한스미디어, 2014.]
- Kim, EunHyung. "The Scarlet Letter: The Conservative Narrator, Radical Hester, and Hawthorne's Gloomy Conclusion." *Journal of American Studies* 48(2016): 53-80. Print.
[김은형. 『주홍글자』: 보수적인 화자와 급진적인 헤스터, 그리고 호손의 우울한 결론』. 『미국학논집』 48(2016): 53-80.]
- Kim, Wook Dong. "The Modernity of Nathaniel Hawthorne's *The Scarlet Letter*." *Foreign Literature Studies* 25(2007): 89-108. Print.
[김옥동. 『주홍글자』의 현대성』. 『외국문학연구』 25(2007): 89-108.]
- Laurent, Alain. *History of Individualism*. Trans. Kim, Yong Min. Seoul: Hangil Que Sais-Je, 2001. Print.
[알랭 로랑. 『개인주의의 역사』. 김용민 역. 서울: 한길크세주, 2001.]
- Lee, Hong Gyun. *Sociology of Alienation*. Paju: Hanul Academy, 2004. Print.
[이홍균. 『소외의 사회학』.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4.]
- Lewis, R. W. B. *The American Adam*. Phoenix Books: U of Chicago P, 1966. Print.
- Carpenter, Frederick I. "Scarlet A Minus." *The Scarlet Letter*. Ed. Seymour Gross. New York: Norton. 291-300, 1988. Print.
- Chase, Richard. *The American Novel and Its Tradition*.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P, 1957. Print.
- Hawthorne, Nathaniel. *The Scarlet Letter: A Romance*. New York: Penguin Books, 2003. Print.
- Hoffman, Elizabeth Aycok. "Political Power in *The Scarlet Letter*." *ATQ*. 4.1 (1990): 13-29. Print.
- Jung, Tae Sik. *The Holy Empire: America-Religion-Nationalism*. Seoul: Paper Road, 2015. Print.
[정태식. 『거룩한 제국: 아메리카·종교·국가주의』. 서울: 페이퍼로드, 2015.]
- Reynolds, Larry J. "The Scarlet Letter and Revolutions Abroad." *American Literature*. 57.1 (1985): 44-67. Print.

- Rousseau, Jean-Jacques. Trans. G. D. H. Cole. *On the Origin of Inequality*. Chicago: The Great Books, 1955. Print.
- Taylor, Charles. *The Ethics of Authenticity*. Cambridge: Harvard UP, 1991. Print.
- Waggoner, Hyatt H. *Hawthorne: A Critical Study*. Cambridge: Belknap-Harvard UP, 1955. Print.
- _____. *The Presence of Hawthorne*.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P, 1979. Print.

이경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 살구골현대아파트 727동 1701호

이메일: kleebuffalo@dankook.ac.kr

논문접수일: 2017. 12. 13 / 심사완료일: 2018. 01. 30 / 게재확정일: 2018. 02. 10.